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3일 목요일 음 10월 19일 (11월)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7-11℃
파고 1.0-2.0m
파고 1.5-2.5m
8-11℃
파고 1.0-2.0m
7-13℃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주	30%
0%	성산	20%
20%	고산	30%
00%	서귀포	20%

해돋이 07:22	달몰림 19:44
해진 17:26	달집 09:44
물때 만조 12:32	간조 06:07
	19:07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림 7/9℃

모레 ☀ 구름 많음 7/11℃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가능지수 보통

월드뉴스

외계와 소통 시도했던 거대 전파망원경

57년 만에 결국 붕괴

지난 57년간 우주를 향한 지구의 거대한 눈 역할을 해온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천체관측소 전파망원경이 결국 붕괴됐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푸에르토리코 아레시보 관측소의 지름 305m 망원경이 밤새 붕괴됐다”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NSF는 “안전이 최우선 순위”라면서 붕괴 소식에 애착함을 표실했다.

AP통신과 푸에르토 일간 엘누에보디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파망원경 상단의 무게 900t 수신포탑이 140m 아래 지름 305m 반사접시 위로 떨어졌다.

아레시보 망원경은 이미 지난 8월부터 파손이 시작돼 해체가 예고된 상태였는데 결국 스스로 무너져내린 것이다.



지난달 부분 파손된 아레시보 전파망원경.

학생들은 이곳에서 외계 행성을 연구하고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을 추적했다. 아레시보 망원경을 이용한 쌍성 펄서(강한 자기장을 갖고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중성자별) 발견은 노벨상으로도 이어졌다. 많은 예비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의 교육 장소로도 활용됐다.

아레시보 망원경은 외계와 교신하려는 인간의 노력에도 큰 역할을 수행했다.

아레시보 망원경은 만세기 넘게 허리케인과 지진 등을 견뎌왔지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운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일론



양 상 철

융합서예술가·문화컬럼니스트

살면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이렇게 일상으로 실감 나던 때가 있었나 싶다. 코로나 확산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우울감을 주머니처럼 달고 사는 세상이 됐다. 가뜰이나 경제가 어렵고 정치마저 혼란스럽다 보니, 서민의 평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코로나 확진 알림 문자 소리조차 듣기가 두렵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 이웃도 참으로 무색해졌으니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할 때인 것 같다.

열린마당

산업재해 처벌 강화 움직임에 대해



이 재 일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장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법)의 시행이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뜻을 달아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장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상해·사망사건의 현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연인 피고인 중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2.93%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33.46%) 및 벌금형(57.26%)에 그쳤다. 심지어 평균 형량은 점점 줄어들었다. 산업법이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이유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안전이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정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십장생도(十長生圖)가 의미 있지요

인간은 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꿈꾼다. 옛 선조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무병장수의 복(福)을 기원하는 그림을 그려, 그 속에 삶의 희망과 염원을 담았다. 조선 후기에 성행했던 민화를 보면 복수(福壽)를 기원하는 문양이나 글자가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장생도(十長生圖)다.

십장생(十長生)이라 함은 예로부터 오래 산다고 믿어왔던 10가지 불로장생의 상징물인 해, 구름, 산, 물, 바위, 학, 사슴, 거북, 소나무, 불로초를 말한다. 조선 후기와 말기에는 대나무나 천도복숭아가 추가되기도 한다.

십장생의 의미를 보면, 해는 만물을 소생시키고 생성하는 에너지의 근원이고, 구름은 속세 초월한 풍류와 인생의 순리를 뜻한다. 산은 불변

함과 굳건함, 물은 깨끗함과 순결·정백·겸손을 상징한다. 바위는 산과 공통적인 의미로 불변과 굳건함, 학은 장수(長壽)와 높은 기상, 사슴은 해마다 뿔이 떨어지고 돋아나 생명력을 의미한다. 거북은 수륙양생(水陸兩生)의 특성 때문에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신령함과 함께 장수를 의미하고, 소나무는 항상 푸른 절개, 불로초는 선계(仙界)의 불로장생 약초(버섯)로 상징된다. 십장생도의 시원양식(起源樣式)은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다. 십장생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부분적으로 보인다. 십장생 그림에 대해서는 고려 말 이색(李穡)의 글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십장생도는 대개 조선 시대 후기의 것들이다.

십장생도는 정초에 왕이 종신들에게 새해 선물로 내려줬다. 주로 왕실

이나 상류 계층에서 세화(歲畵)와 축수용(祝壽用) 그림으로, 또 조선 시대에는 병풍 등 회화뿐 아니라 도자기, 나전 공예, 목공예, 혼례 때 신부의 수저 주머니, 베갯머리 자수품, 버루 등 문방구, 건물 및 벽 장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생활에 이용됐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 것의 소중함이 간과되면서 서구문화와 신식 문물에 떠밀려 애용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옛것이라고 해서 다 낡은 것이 아니다. 우리 것에 선조의 지혜와 위트가 담겨있다. 조상들이 십장생도를 그려 무병장수와 안녕을 기원했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소나무든 대나무든 십장생 그림 한 점쯤 집에 소장해 자기 안위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제주도국립공원 지정확대 공익·사익의 공존



한 민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산림청을 비롯한 임업인들은 100억 그루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그리고 병해충방제·재해사방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 활동을 추진해 선진국 수준의 산림경영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제주도에선 도내 일정 산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산림 보전이라는 명목하에 무리하게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면 산림경영에 대한 산주의 정당한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기보다 산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주도 내 산림은 그동안 산림경영을 통해 한라산표고·고사리·산양삼·도라지·건초재 등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며, 산림 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 내 국립공원 지정 여부는 뛰어난 자연풍경지에 대한 재평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확화, 그 지역 국립공원에 맞는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그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부의 ‘공익기능 보존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 확대’라는 설득력 없는 논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의 궁금증을 낳게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환경부·산림청·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계획적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지역진흥을 위한 주변 지역과의 연대, 산림생태 보호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논의돼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민 대다수의 공익과 산주들의 사익 그리고 산림청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만 천혜의 자연 도시 제주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 주체의 선정 또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제주인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코코리

임상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유효율을 높여주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균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생군 발달을 촉진함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분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희토류가 들어있는

→ “이노페스” 탄생

종미개선

광합성 촉진

뿌리발달

당도 향상

신진대사 촉진

내병성 강화

이노페스

생산성 증대

이노페스 성분

원료명	효과
희토류	염류중화 · 토양개량 · 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식산	유기물 대체 · 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산 · 백합추출물	토양해충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특징

☆가스피해가 없다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희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사용 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판매처 농업 · 김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